

/지역 단신/

신안교육청 혁신 실천자 연수



신안교육청(교육장 강중산)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신안군 임자면에 있는 신안군청소년수련관에서 2006 혁신 실천자 연수를 실시했다. (사진)

이번 연수에는 신안교육청 및 관내 각급학교 혁신 실천자들의 혁신역량 강화 및 마인드제고, 창의적 업무 개선 등을 주제로 교육청 전직원을 비롯하여 신안관내 초·중 교감 및 행정실장 등 총 11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변화와 혁신을 주제로 신안교육청 강중산교육장과 주신호 서기관(전 무안부군수)의 특강과 본인토의, 혁신 우수사례 등 각종 혁신관련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진행돼 참가자들의 혁신마인드 및 역량 강화를 제고시키는 계기가 됐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해남경찰 '해피 콜' 제도 실시

해남경찰서(서장 권세도)는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한 해피콜(Happy-call) 제도를 실시한다.

해피콜은 경찰 청렴도 향상 및 대국민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민원인에게 전화하여 민원처리과정·경과에 대한 민원인의 만족도, 불만사항 및 경찰관의 청렴도를 직접 수집하는 제도. 고객인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점검해 경찰행정의 체감만족도 향상은 물론 제도개선에도 상당한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해남=박정욱기자 jopark@

우이도서 세미나도 촬영대회

신안군 도초면 우이도 둔목해수욕장에서 오는 20일 '전국 세미 누드 사진 촬영대회'가 열린다.

신안군 관계자는 "선착순 350명에 참가하는 3만 원이며 응모 작품은 당일 모델을 소재로 한 작품에 한한다"고 말했다.

사진촬영대회는 당초 우이도 모래언덕에서 열 예정이었으나 국립공원공단에서 훼손 조사 및 대책마련을 위해 2011년까지 5년간 출입을 금지함에 따라 둔목 해수욕장으로 변경됐다. 참가신청은 사진협회 목포지부 0505-825-5858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동문들 뭉쳐 문 닫은 모교 되찾기

2002년 폐교 창평 유곡분교

폐교된 시골 초등학교 동문들이 모교 되찾기에 나섰다.

담양군 창평면 창평초등학교 유곡분교 총동문회는 15일 창평면 유곡리 한 정자에서 '학교 되찾기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킨다.

유곡분교는 동네 주민들이 회사원 부지에 학생들이 고사리 손으로 벽돌을 날라 지어 1943년 첫 신입생을 맞았지만 학생수 감소로 2002년 9월 문을 닫았으며 개인에게 매각됐다.

그러나 폐교를 매입했던 소유주가 최근 8억원에 이곳을 되팔려 한다는 소식이 동문들을 뭉치게 했다. 추진위는 부지를 되찾는데 필요한 돈을 모으고 공공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해 재정·행정적 도움도 요청할 예정이다. /담양=차재희기자 jwhwa@

9명이 일주일 걸릴 방제작업 하루면 끝

무인헬기 농촌인력난 '해결사'

"9명의 인원이 살포기 3대에 매달려 꼬박 1주일 걸리던 방제 작업이 무인헬기를 이용하면 단 하루 만에 마칠 수 있습니다" 무안군 망운면에서 12만평의 논에 쌀 농사를 짓는 김성원(37)씨는 지난해부터 무인헬기로 농번기 인력난을 해결했다.

김씨는 "매년 농번기때마다 짧은 인력 구하기가 힘들어 적기 방제에 애를 먹었으나 이제는 인력 구하느라 여기저기 뛰어다닐 필요가 없게 됐다"며 밝은 표정이다.

농약살포 60%까지 줄여

소형 무인 방제헬기가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을 덜고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전남지역에 보급된 무인 헬기는 모두 4대. 지난해부터 전남에 첫 선을 보인 무인헬기 효과가 입소문으로 퍼지면서 고흥, 함양, 장성 남면농협 등 4~5개 지역에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무인 헬기의 장점은 빠른 작업속도와 농약 살포량을 크게 줄일 수 있어 친환경 농업에 적합하다는 것. 작물위 3~5m 높이에서 시속 15~20km(최고속도 80km)로 날며 좌우 7.5m까지 약제가 살포돼 불과 6분이면 3천평 논이 방제나 비료 살포 작업이 완료된다.

더욱이 프로펠러의 바람을 이용, 약제가 밑으로 살포돼 공중으로 날아가는 낭비를 줄여 지상에서의 방제작업에 비해 최대 60%까지 농약을 덜 사용하면서도 방제 효과는 두배 가까이 높다.

작년 첫 선 전남 4대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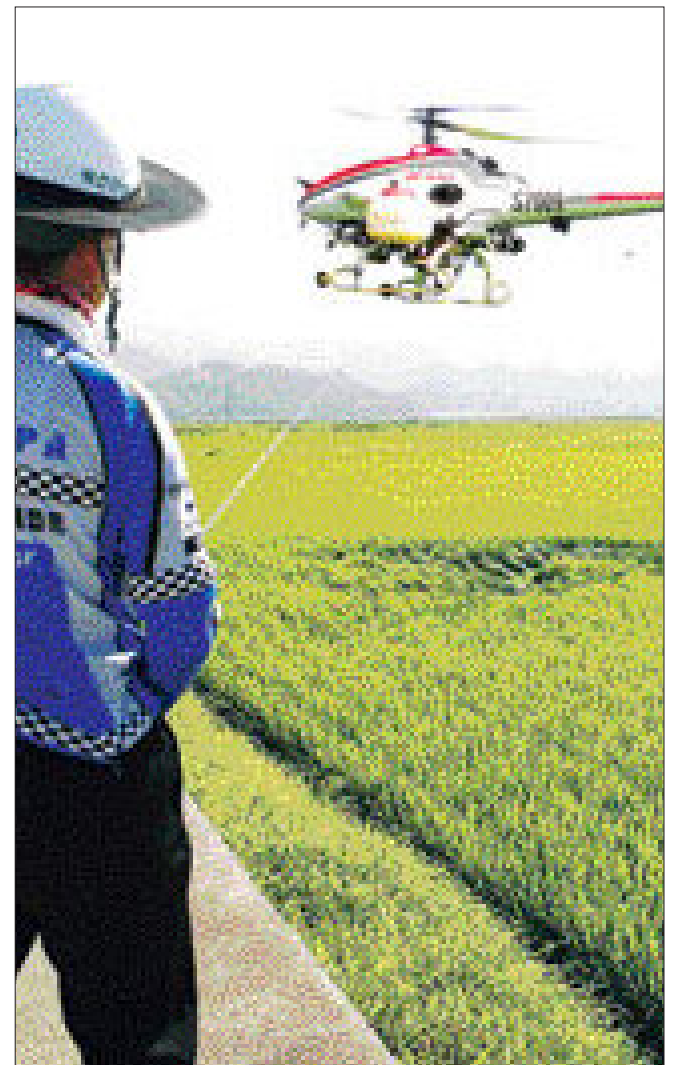
지난해 6월 전국 자치단체중 최초로 무인방제 헬기를 구입한 장성군은 남면 친환경 홍길동쌀 생산단지(477.5ha)를 대상으로 키토산비료와 미생물제제, 생물농약 등을 공동 살포해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지도 북신안농협과 안좌농협도 친환경 농업단지 위주로 방제작업에 투입하고 있다.

북신안농협 정구진(61)조합장은 "친환경 농산물 재배단지에 방제작업을 벌인 결과 농약 잔류량이 기준치 이하로 나오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1대를 추가구입해 마늘, 양파 등 밭작물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5개 농협서 도입 추진

일주일 정도 교육받으면 작동이 가능하고 길이 3.6m, 높이 1.08m에 무게 64kg으로 1t 트럭에 실을 수 있어 기동성도 괜찮은 편. 문제는 가격이다. 일본 야마하사가 대당 2억원대에 판매하고 있어 재정부담이 만만치 않다. 현재 지자체나 농협 등에서 한시적으로 50~70%까지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원 비율을 더 높여줄 것을 농민들은 바라고 있다. 한편, 87년부터 실용화된 일본은 작년 말 2천183대가 보급돼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2004년 하반기부터 도입, 현재 전국에 16대가 가동중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무인헬기가 고령화 시대 전남 농업 인력난 해결의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사진은 고흥 농협농업이 무인헬기로 키토산 비료를 살포하고 있는 모습. <고흥 농협농업 제공>



양심화분 설치하니 이렇게 변했습니다



장성군이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10개소에 팬지와 송명국 등 꽃으로 장식된 '양심화분'을 설치해 쓰레기 불법투기를 막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양심화분 설치 전(좌)과 설치 후의 변모된 장성을 풍터 모습. /장성=고재민기자 jggo@

홀로 노인·소년 가장 등 1대1 관리

나주시 '사회복지 안전지킴이' 운영

나주시는 홀로 사는 노인이나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등을 행정기관과 지역 유관기관,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회원들이 1대1 관리하는 '사회복지 안전지킴이'제를 마련, 운영한다.

나주시는 읍면동별로 협의체를 구성해 각 대상자 개별 관리카드를 마련, 목욕이나 청소, 빨래, 가사봉사, 진료, 상담 등의 봉사활동과 자원 활동을 구체적으로 기록 관리키로 했다. 나주시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취약계층 수는 중증 장애인 1천80여명 등 6천203명으로 인구 대비 6.4%에 달한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약, 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취약 계층에 대한 각종 서비스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 중증 지원이나 지원 누락 등의 문제점도 해소할 수 있다.

시는 이달말까지 각 읍면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치안센터, 농협, 우체국, 새마을부녀회, 자원봉사자 등으로 협의체 구성을 마무리, 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나주시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취약계층 수는 중증 장애인 1천80여명 등 6천203명으로 인구 대비 6.4%에 달한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고흥군 장기복지계획 좌초 위기

4년간 1,900억원 필요...재정 확보 불가

고흥군이 최근 확정된 2007~2010년 고흥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예산문제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나타나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고흥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현대산업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기본구조와 기반조성계획을 비롯한 노인복지, 저소득층 복지계획 등 부문별 사업계획 등으로 짜여져 있다.

그러나 향후 4년간 노인복지부문 37항목 757억 원을 비롯해 저소득층복지 부문 21항목 748억 원 등 총 182항목에 1천900여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열악한 고흥군의 재정 여건상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흥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국고 보조가 없을 경우 사실상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 무분별한 용역발주로 세금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박병중 고흥군수도 "아무리 좋은 시책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며, 지역경제가 살아야 주민복지도 있는 만큼 복지보다 우선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혀 전임군수시절에 추진된 이시책을 무리해서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그러나 향후 4년간 노인복지부문 37항목 757억 원을 비롯해 저소득층복지 부문 21항목 748억 원 등 총 182항목에 1천900여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열악한 고흥군의 재정 여건상 실현 가능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흥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국고 보조가 없을 경우 사실상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 무분별한 용역발부로 세금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박병중 고흥군수도 "아무리 좋은 시책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며, 지역경제가 살아야 주민복지도 있는 만큼 복지보다 우선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혀 전임군수시절에 추진된 이시책을 무리해서 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성수기자 dss@kwangju.co.kr

전국 각설이 무안서 한판 대결 18~20일 '폼바 명인대회'

'폼바'타령의 최고수를 뽑는 명인대회가 폼바의 발상지인 무안에서 열린다.

무안군 일로읍 청년회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일로읍 회산 백련지에서 중 장터광판이 돼 이곳에 들어와 경쟁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연이 1980년대 김시라씨에 의해 연극으로 만들어져 무안에서 처음으로 공연된 이후 국내외에서 4천여회 이상 공연되면서 큰 인기를 모았다. 그러나 무안은 폼바 타령의 발상지를 알리는 표지석만 있을 뿐 현지에서는 거의 잊혀져 가고 있다.

일로읍 청년회 관계자는 "주민들 스스로 폼바타령의 명맥이 사라져 가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에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한국농촌공사 전남본부 14일 "농촌공사 전남본부와 벤처기업인 장성 신흥특장기술이 공동으로 5천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1년여의 연구끝에 기존 제품과 차별화한 신형 수초 제거기를 최근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존 제품은 단순히 수초를 절단하는 기능만을 갖고 있을 뿐이나, 새 수초 제거기는 15cm 크기의 나선형 칼날 24개가 회전하는 방식으로, 절단된 수초를 제거기에 딸린 자체 적는 새로운 수초 제거기(사진)가 개발됐다.

압축·포장... 획기적 수초 제거기 개발

농촌공 전남본부-벤처기업, 내년부터 실용화

배수·용수로 또는 경작지 등에 자리면서 물의 흐름을 막아 농사에 지장을 주는 수초를 획기적으로 제거하는 새로운 수초 제거기(사진)가 개발됐다.

한국농촌공사 전남본부는 14일 "농촌공사 전남본부와 벤처기업인 장성 신흥특장기술이 공동으로 5천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1년여의 연구끝에 기존 제품과 차별화한 신형 수초 제거기를 최근 개발했다"고 밝혔다. 기존 제품은 단순히 수초를 절단하는 기능만을 갖고 있을 뿐이나, 새 수초 제거기는 15cm 크기의 나선형 칼날 24개가 회전하는 방식으로, 절단된 수초를 제거기에 딸린 자체 적는 새로운 수초 제거기(사진)가 개발됐다.

연구를 주도한 박용규(48) 농수관리과장은 "기존 제품은 수초 제거 시 흙이 함께 딸려나오고, 제거된 수초가 교란이나 암거에 걸리는 등 불편이 많았다"며 "앞으로 특허출원을 하고 예산을 확보, 내년부터는 현장에서 실용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movies

이런 영화의 흥행은 자신 보는데도

Happy Time

영화안내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련단약국사거리 ☎061544-0600

배라 괴물	(12세/다중)	최고급관
2관 괴물	(12세)	
3관 스승의 은혜	(12세)	
4관 괴물	(12세)/몬스터하우스(전/미/영/독/프)	
5관 디세포스녀	(15세)	
6관 게트전기-어스시스의 전설	(전)	
7관 괴물	(12세)/올라이 대대	(12세)
8관 각설이	(전)	
9관 괴물	(12세)	

Megatizen Day 매주 목 금 영화 4,000원 관람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관외에 한함) : 3시간 초과시 정산요금 부과

★관객이 무제한 공짜 (매입일자 7시부터 8시45분까지)

가족의 사투가 시작된다

괴물

괴물

주최장이 편한 극장

엔터시네마

충장로 5가 ☎ 228-2700

1관 디세포스녀	(15세)
2관 포탄	(15세)
3관 올빼미	(15세)
4관 올빼미	(15세)
5관 괴물	(12세)
6관 올빼미	(15세)
7관 올빼미	(15세)

한반도

한반도

컬럼버스 시네마

이남철 상무점

하남점 (우역회관뒷편)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1관 디세포스녀	(15세)
2관 올빼미	(15세)
3관 올빼미	(15세)
4관 괴물	(12세)
5관 몬스터하우스	(전/미/영/독/프)
6관 올빼미	(15세)
7관 괴물	(12세)
8관 올빼미	(15세)
9관 올빼미	(15세)
10관 괴물	(12세)

충남 최대 극장 • 매일 밤 8시 상영한다 1588-7941

상당원권 방법 → 상담원에게 문의

콜롬버스 이남철 (10명) 할인 885 (1인/2인 → 1면)

씨너스 광주 8개관

8월 초 오픈

T.383-3445~7

★남·여 직원 및 이트비이트 모집★

★상가임대문의★

T.(062)384-3535